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앵커로서의 공공도서관 고찰*

- 유휴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 분석 -

Public Libraries as a Social Anchor in Urban Regeneration Paradigm - A Case Study of Constructing Public Libraries through Renovating Under-used Spaces -

박 성 우(Seong-Woo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사회적 앵커로서의 공공도서관 |
| II. 도시재생과 사회적 앵커 | IV. 결론 |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도서관의 존재당위를 검증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맥락에서 도입된 생활SOC 정책에서 도서관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사회적 앵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앵커는 시공간에 제약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해 사회자본의 형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개방과 공유, 정보평등의 사명으로 인해 경계와 소속을 강조하는 집합적 정체성이 미약하다.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유휴자원의 장소정체성을 집합적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은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적 앵커 형성 모델이다.

주제어: 사회적 앵커, 사회자본, 집합적 정체성, 도시재생, 유휴자원, 리노베이션, 생활SOC, 공공도서관

ABSTRACT: The study aims to prove the *raison d'être* of public libraries in urban regeneration paradigm. Life SOC Plan is one of South Korea'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Public libraries are considered important in life SOC Plan because public libraries are "Social Anchors". Social Anchor is space-time-bounded place that accelerates diverse people's interactions. Social Anchor makes collective identity that supports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ublic libraries are institutions producing social capital but have weak collective identity because their missions(open, sharing, equality of information) don't allow boundaries and membership. The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to confirm how collective identity of public libraries strengthens. As a result, the study confirmed that renovating under-used space based on urban regeneration paradigm makes place identity of the under-used space to collective identity of public libraries. Thus, constructing public libraries by renovating under-used space is Social Anchor formation model based on urban regeneration paradigm.

KEYWORDS: Social Anchor, Social Capital, Collective Identity, Urban Regeneration, Under-used Spaces, Renovation, Life SOC, Public Libraries

* 본 논문은 2020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culturepark@gwangju.ac.kr / ISNI 0000 0004 6322 5864)

• 논문접수: 2020년 5월 21일 • 최초심사: 2020년 6월 4일 • 게재확정: 2020년 6월 2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133-157,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2.202006.13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본주의와 흐름을 같이 했던 종래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은 ‘성장과 개발’이라는 글자로 압축된다. 경제발전과 이익창출에 입각하여 형성된 도시는 자본주의의 표현형으로써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김용창 2011).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대변되는 대안적 도시발전 패러다임은 감소하는 인구, 정체되는 경제발전, 생활격차 심화에 따른 인구집약화가 불러온 도시소멸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배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도시발전 전략이다.

생활기반시설을 지역에 확충하는 정책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에 정주하게 하여 도시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된다. 종전의 기반시설 확충이 경제발전과 자본생산을 위한 초석으로서 대규모 기간시설에 집중되었다면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의 기반시설 확충은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성을 보장받은 사람 중심의 기초생활 인프라에 집중된다(김연수, 김세용 2019, 534). 국내에서는 경제활동과 연결되는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차원에서 생활SOC라고 명명되었다(조희은, 남지현 2019).

이 생활SOC 정책의 핵심에 도서관이 있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2019년 4월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는 핵심 생활SOC로 공공도서관,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을 선정하였다(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또한 3개년 계획을 근거로 시행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대상인 10개 유형 중 2개(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가 도서관으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에서도 작은도서관이 87개, 공공도서관이 73개가 선정됨으로써 도합 160개가 대상 시설로 선정되었다. 가장 많이 선정된 생활문화센터(146개)보다 14개가 많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왜 도서관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사회적 앵커 이론을 도입한다. 사회적 앵커는 앵커 개념을 심화시킨 이론이다. 앵커 시설은 자본 생산을 강화하는 비영리적 속성을 띤 기관으로서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관이다(Dragicevic 2015; Mersand, Udo, Gasco-Hernandez, Gil-Garcia 2019). 사회적 앵커는 사회자본 생산을 강화하는 기관으로서, 시공간적 제약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관계망을 통해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을 강화하고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극대화시키는 사회적 기관을 일컫는다(Clapton and Finch 2011). 즉 사회적 앵커 이론은 사회적 기관이 어떻게 사회자본을 형성하는지 그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생산하고 강화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여 입증되었다(Varheim 2009; 2011; 박성우, 장우권 2009; 2010; Johnson 2012; 박성우 2014; 김하진, 김기영 2014; 현영란 2016; 이승민 2016; 2018a; 2018b; 이승민, 박종도 2019). 자본의 유형을 바탕으로 한 앵커와 사회적 앵커의 대조는 SOC와 생활SOC의 대조와 같은 구도를 가지며, 동시에 도서관이 생활SOC의 핵심인 이유를 뒷받침한다.

이들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성에 입각한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형성한다는 양적 검증을 수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성 매커니즘을 입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앵커 이론을 도입하여 기존 연구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성 매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사회자본 관계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빈번하게 채택되는 유희자원 재활용 전략이 공공도서관에 가지는 의미를 검토한다.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지 않고 유희자원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본 논문은 사회적 앵커의 주요 단계인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의 형성에 입각하여 유희자원 재활용 전략이 도서관 건립에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유희자원 재활용 전략을 통해 건립된 국내 공공도서관 사례 3개를 사회적 앵커의 특성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적 차원에서, 도시재생 정책의 맥락에서 나타난 공공도서관의 존재당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실천적 차원에서,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일환으로서 유희자원 재활용 전략이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도서관을 앵커 기관으로 본 Mersand, Udo, Gasco-Hernandez, Gil-Garcia(2019)와 Goodman (2016)은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과 정보 리터러시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역할 검증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이지만,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사회적 앵커의 관점에서 도서관을 조망하지는 않았다. 단 이들은 문헌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유지시킨다는 관점은 확실하다.

공동체 거점시설로서 도서관을 조망한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도서관과 공동체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신승수, 홍지학, 김광현(2009)은 영국의 커뮤니티 개념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계획 특성 변화를 검토하였고, 양영균(2012)은 인천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이성신과 성희자, 이세나(2018)는 대구의 다문화도서관 '아띠'의 사례로 인적네트워크를 공고화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최재연과 김찬호(2015)는 도시계획 과정

에서 지역 커뮤니티로서 의미를 상실한 초등학교의 역할을 작은도서관이 대체할 수 있을지 양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사회자본을 육성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커뮤니티 앵커(community anchors)의 관점에서 도서관을 조망한다. 특히 김소연과 김용승(2018)은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커뮤니티 거점시설로서의 작은도서관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의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매개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2010년대에 주도적으로 발굴되었다.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반영한 도서관 연구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도서관을 보는 연구들(유해연, 송준엽, 양지원 2018; 유해연 2018; 문은미 2017; Skot-Hansen, Rasmussen, Jochumsen 2013; 김다솜 2019)이고, 다른 하나는 유휴자원을 재활용하여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와 계획에 관한 연구(노영희, 노지윤 2018; 2019a; 2019b; 단성훈, 최유중 2017; 양재영, 김동훈 2016)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도서관을 보는 연구들 또한 사례분석에 집중한다. 특히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해 문화적 도시재생 과정에서 도서관의 시설 복합화를 강조한다(문은미 2017; Skot-Hansen, Rasmussen, Jochumsen 2013). 도시재생계획 속에서 도서관 설립 요건을 사례분석의 결과를 통해 도출하여 제안하거나(유해연, 송준엽, 양지원 2018; 유해연 2018) 국내 도시재생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도서관 건립계획을 제안하기도 한다(김다솜 2019).

한편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을 채택한 연구들은 실제 존재하는 구체적인 유휴자원을 제안하여 해당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한다. 단성훈과 최유중(2017)은 근대문화유산인 용산 철도병원을 복합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을 제안하였고, 양재영과 김동훈(2016)은 제주 원도심에 위치한 제주대학 부지 리모델링을 제안하였다. 한편 노영희와 노지윤(2018; 2019a; 2019b)은 폐교라는 유휴자원 유형을 도서관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연속적인 논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에 앵커 개념을 도입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사회적 앵커 이론을 도서관과 연결 짓는 연구는 없었다. 지역 커뮤니티 거점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도도 있었으나 커뮤니티 앵커 개념은 공동체의 형성 시점에 입각하여 사회적 앵커 개념과 구분되기 때문에 사회적 앵커 개념과는 궤를 달리한다(Clapton and Finch 2011, 75).

한편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은 도서관 연구들은 실제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재생계획과 결부된 도서관 공간 계획 특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도서관이 가져야 할 공간 요건을 제안하거나, 실제 유휴

자원 부지의 개발 계획을 제안하여 실천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였으나 ‘왜 공공도서관이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앵커인지를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유희자원 재활용(리노베이션)을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앵커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한다.

II. 도시재생과 사회적 앵커

1. 도시재생 패러다임과 도서관

근대적 도시발전 모델은 도시개발을 기술로서 인식하고 규범적으로 이상적인 생활환경을 상징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이나 개입과 상관없이 이를 일관되게 구현하는 작업으로 보았다. 근대적 도시발전 모델은 이상적인 도시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역동성을 최소화하고, 더 우수한 기능을 가진 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근대적 도시발전은 독립된 공간 하에 파편화된 개인, 문화적 다양성의 퇴보, 과도한 경쟁논리에 입각한 이윤추구와 도시 황폐화,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왔다(김용창 2011).

경제개발 중심의 근대적 도시발전 모델의 문제는 ‘문제의 다원화’이다. 개인의 인권, 삶의 질 회복, 문화적 다양성, 개발 억제, 사회적경제, 반전 등 어떠한 문제에 입각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대안적 도시발전 모델이 제안되었다(김용창 2011).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2조에 입각하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시재생법 2019)”을 말한다. 근대적 도시발전 모델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을 지역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의미가 숨어있다. 즉, 도시재생 패러다임이란 경제 개발 중심의 근대적 도시발전 모델에 대한 대안적 도시발전 패러다임이다.

김용창(2011)은 현대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조망하느냐에 따라 공간규모확대, 기술지식사회, 생활양식전환, 도시계획원리전환의 구분 하에 14개의 대안적 도시발전 패러다임 모델을 소개한다. 그 중 무분별한 팽창 중심의 도시개발에 경종을 울리는 신전통주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자동차 교통 이전의 도시공간에 영감을 두고, 도시공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교류를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확보하며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표 1〉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주요과제의 양적 공급목표의 준거를 거리 및 수량으로 둔다. 기초생활 인프라의 도보 접근권을 가시화시킨 정책의 공급목표는 우리나라의 생활SOC 정책이 신전통주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입각하고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생활SOC 3개년계획 도서관 분야 공급목표(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17)

구분	'17.12월 기준	22년(착수기준)
공공도서관	1,042개 (1개관당 5만명)	1,200여개 (1개관당 4.3만명)
	공공도서관의 접근시간을 12분(5km)에서 10분(4km) 이내로 단축	
작은도서관	6,058개 (1개관당 8.5천명)	6,700여개 (1개관당 7.6천명)
	공공도서관의 보완재로 활용 공공도서관 보급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과 생활SOC복합시설내 집중확충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추진배경은 “양적성장 중심 투자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2)”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활SOC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다. 조희은과 남지현(2019, 37)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언론 검색을 통해 도출한 키워드 분석에서 도서관은 시설에 관련된 언급으로는 복지, 녹화사업, 친환경, 도시숲에 이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들은 기존 문헌 16개를 분류하여 생활SOC의 유형과 기관을 도출했는데, 도서관은 16개 문헌 중 13개에서 언급됨으로서 가장 많은 문헌에서 언급된 기관이었다. 해외 선형연구 6개를 분석해 인프라의 종류별 언급 빈도를 분석한 김연수와 김세용(2019, 536)의 연구에서도 공공도서관은 지역문화회관, 초등학교, 유치원과 함께 5번으로 가장 많은 언급 빈도를 보였다.

종합하면, 생활SOC 정책은 기존의 근대적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 대안적 도시개발 패러다임인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우리나라의 정책이다. 생활SOC 정책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격차 완화, 그리고 지역 활력을 위한 주민간의 관계 형성 등이며, 생활SOC 정책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앵커와 대조된다. 따라서 생활SOC 정책에서 도서관이 왜 중요하게 언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앵커와 사회적 앵커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앵커와 사회적 앵커

앵커 시설(anchor institutions)은 지역을 기반으로 고정된 장소이다(Anchor Institutions Task Force 2009). 앵커 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정성인데, 이 고정성이란 지역사회의 어느 특정한 장소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장소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인적·지적 자원이 고정된다는

것(anchor in)을 의미한다(Dragicevic 2015).

앵커 시설이라는 용어는 1960-70년 미국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쇠퇴한 도시를 재건하고 주민들을 다시 모객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앵커 시설을 지역에 도입시키는 전략이 채택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대학과 병원이 등장하였다. 교육체계와 의료체계가 지역사회에 대한 자본의 유통을 촉진시키며 경제적 활성화를 이끌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설로 주변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이들의 소비기반이 시설 주변에 마련됨으로써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졌다(Goodman 2016).

이 외의 앵커 시설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박물관, 도서관, 학교 시설 등이 등장하였다(Goodman, 2016; Dragicevic 2015; Harris and Holley 2016).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시설이다. 앵커 시설이 특정 지역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정주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공성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리기관일 경우, 지출이나 정부규제, 수입 등 경제적 이유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Harris and Holley 2016). 그러나 비영리기관의 설립 목적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독자적인 다른 목적, 주로 공공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앵커 시설이란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시설이다(Harris and Holley 2016). 즉 앵커 시설은 “강력한 소비능력 혹은 고용력을 갖춘 대규모의 공공·비영리조직(Dragicevic 2015, 7)”이다. 이 정의는 지역사회에 경제적·인적·지적 자원을 고정시키는 기관을 표현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상의 논고를 통해 도출한 앵커 시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기반을 두고 비이동성을 가진 고정된 자산(fixed asset)일 것. 둘째, 자본을 직접 생산하기보다 자본의 생산을 지원하는 공공·비영리기관일 것. 전자의 정의를 통해 앵커 시설은 사회간접자본¹⁾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앵커(social anchor)란 앵커 시설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지칭에서 알 수 있듯 본질적으로 사회적 앵커는 앵커 시설에 속한다. 앵커 시설 속에서 사회적 앵커를 구분 짓는 지점은 이들이 생산을 지원하는 자본의 유형에 있다. 앵커 시설이 자본의 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사회적 앵커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앵커 시설 안에서도 다른 앵커 시설들과 구분된다.

1) 구형수(2018)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직접 생활 활동에 동원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를 일컫는다.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를 일컫는 실물 자산이라는 점에서 앵커 시설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며, 직접 생활 활동에 동원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3. 사회적 앵커의 조건

사회적 앵커는 앵커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고정된 자산, 즉 규모를 갖춘 시설이다. 그리고 사회적 앵커는 일반 앵커 시설 중에서도 특히 사회자본을 생산한다. 사회자본이란 면대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무형자산이다(박성우 2014). 경제적 자본 생산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생산을 통해 사람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앵커 시설에서 사회적 앵커 개념의 분화는 SOC에서 사람 중심의 인프라인 생활SOC로의 정책 변화와 목적이 같다.

이상의 정의는 앵커 시설의 정의에 입각한 것이나, 사회적 앵커 이론은 사회자본의 형성 과정을 정의내리기 위해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 앵커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가진다. 첫째, 사회적 앵커의 목적은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의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앵커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집합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셋째, 사회적 앵커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시공간적으로 제약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Clapton and Finch 2011). 첫 번째 조건은 사회적 앵커의 목적, 두 번째 조건은 사회적 앵커의 방법, 세 번째 조건은 사회적 앵커의 전제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앵커의 목적은 사회자본의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규모의 차원에서 개인적 사회자본과 집합적 사회자본, 관계의 차원에서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으로 나뉜다(Putnam 2000). 사회적 앵커의 작용, 즉 앵커링(anchoring)은 개인의 단위보다 공동체 수준에서 많이 발휘된다. 결속적 사회자본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앵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 간의 관계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동시에 개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적 앵커는 교량적 사회자본을 새로이 생산하는 만남의 장이다. 사회적 앵커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만남을 장려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연결을 돕는다(Clapton and Finch 2011). 교량적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의 외연을 확장할 뿐 아니라,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대결속(hyperbonding)에 의한 사회적 배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앵커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둘째, 사회적 앵커는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을 돕는다. 개인의 정체성은 특정한 그룹에 대한 소속과 비소속으로 규정되며 복수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이란 소속감, 영향력, 통합과 욕구충족, 감정적 유대의 공유로 이루어지며 정체성의 형성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소속감(membership)에 의해 발생한다(McMilan and Chavis 1986). 사회적 앵커는 이 '특정한 그룹'이 될 수 있어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관이다. 단 사회적 앵커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하위 그룹이라기보다 지역사회 전체에 내재된 보편적인 상위 정체성, 즉 집합

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룹이다. 사회적 앵커를 통한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앵커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약한 연결(thin connection)을 바탕으로 한 교량적 사회자본을 형성한다. 한편 이들 중 공통의 관심사와 기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나 관계망을 형성할 때 하위 그룹이 형성된다. 이는 강한 연결(thick connection)을 바탕으로 결속적 사회자본을 유지하게 한다(Clapton and Finch 2011).

셋째,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과 사회자본 생산 지원은 모두 사회적 앵커가 시공간적으로 제약된 공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재하는 장소는 특정한 시공간에 종속된 반복되고 정기적인 상호작용이 사회자본을 생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 속의 네트워크는 변화할 수 있으나 사회적 앵커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고정된 공간에서는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활동이 발생하고,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 간의 관계와 정체성이 형성되며, 정체성이 사회자본의 생산을 촉진한다(Bridger and Alter 2006).

커뮤니티 앵커와의 차이점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커뮤니티 앵커는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주민 조직으로서, 지역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견인하는 앵커 역할(김상민 2017, 2)”로 정의된다. 커뮤니티 앵커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이미 가지고 있던 특성을 파급시키고 공동체의 목적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즉 공동체는 커뮤니티 앵커의 형성 이전에 이미 발생해있다.

그러나 사회적 앵커는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기관이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집합적 정체성은 사회적 앵커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Clapton and Finch 2011). 즉, 사회적 앵커를 통해 공동체가 형성된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주로 커뮤니티 앵커 개념을 기반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등장하는 도서관의 역할 예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실업자, 이민자, 망명자 등)이 지역사회에 편입되거나, 시민들이 모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기능이다(Mersand, Udo, Gasco-Hernandez, and Gil-Garcia 2019). 이 기능들은 사전에 형성된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앵커이기보다 사회적 앵커이다.

Ⅲ. 사회적 앵커로서의 공공도서관

1. 사회적 앵커의 조건에 따른 도서관

가.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

도서관이 사회자본을 생산하는 공간임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발표된 연구들에 의

해 충분히 검증되었다(Varheim 2009; 2011; 박성우, 장우권 2009; 2010; Johnson 2012; 박성우 2014). 사회자본은 생성과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도서관은 사회자본을 생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 연구에서 중요하다(Varheim 2009).

사회자본의 형성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뢰, 호혜성, 연결망으로 구성된다(박성우, 장우권 2009). 이 3가지 요소 중 도서관의 사회자본 형성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신뢰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때문이다(Varheim 2009). 신뢰 중에서도 도서관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기반 신뢰이다. 도서관은 안전한 장소로서 제도기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개인들 사이에 일반화된 신뢰를 형성하며, 연결망, 호혜성은 신뢰→연결망→호혜성→신뢰로 상호 영향관계를 지닌다(박성우 2014).

신뢰는 도서관의 방문을 촉진하여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며, 계층과 계급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집단 간의 만남을 촉진하여 연결망을 형성시킴으로써 교량적 사회자본을 발생시킨다(Varheim 2009; 박성우 2014). 공공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개인적 정보활동 과정에서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고 도서관 프로그램의 참여와 커뮤니티에의 참여를 독려한다(이승민 2016). 이렇게 형성된 교량적 사회자본이 결속적 사회자본까지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지만, 오히려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화될 경우의 과대결속을 염려하고 교량적 사회자본과의 적절한 균형을 역설하는 사회적 앵커 이론과 일치한다.

일반화된 신뢰를 기반으로 도서관에서 우연적 만남이 성사되고 다양한 집단 간의 연결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서관은 이용자 지향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화된 호혜성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여겨지며, 이 단계는 재귀적으로 이루어진다(박성우 2014). 호혜성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앵커의 유지와 역할 수행에 관한 측면으로 이해된다. 이상에 입각하면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을 생산하는 사회적 앵커로서의 조건 중 첫 번째, 사회자본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집합적 정체성과 공공도서관

개인은 특정 그룹에 대한 소속과 비소속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지역사회 주민이 공유하며 하위 정체성을 생산시키는 보편적인 상위 정체성을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부른다(Clapton and Finch 2011). 사회적 앵커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서, 이 장소를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해 사회자본을 생산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앵커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시공간적 제약에 처한 활동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상위 정체성으로 규명되려면, 뉴욕 시민들이 '뉴욕 커리는 상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듯 (특정) 공공도서관 이용자라는 정체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이 가진 시공간적 제약성은 사람들이 만나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상호작용은 영리성에 입각하지 않는다. 시공간적 제약 하에서의 비영리적 상호작용

은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공공도서관 이용자’라는 집합적 정체성은 존재한다.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은 장소에 귀속됨으로써 동시에 장소정체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정)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집합적 정체성으로 규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을 통한 집합적 정체성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근본적 사명에 입각한다. 공공도서관은 개방, 공유, 누구나 이용가능한 정보평등을 보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2019년 발표된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비전은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을 포함하였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32). 비단 정책사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소속감을 약화시킨다. 소속/비소속은 공동체 의식 중 소속감과 연관되며, 소속감은 경계(boundary)에 의한 구분을 전제한다(McMilan and Chavis 1986). 공공도서관의 개방과 공유, 정보평등 미션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포용하며 교량적 사회자본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나, 실천적 차원에서 경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집합적 정체성이 되기 어렵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장소애착이 장소정체성보다 장소의존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장소애착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는 장소에 대한 감정적 애착인 장소정체성과 장소에 대한 기능적 애착인 장소의존성으로 나뉜다(이정호 2012). 그러나 도서관의 장소애착을 형성하는 측정변수 중 장소정체성이 아니라 장소의존성이 장소애착에 더 많이 영향을 주며, 이는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목적지향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한다(이정호 2012).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집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집합적 정체성은 미약하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즉 이상에 입각하면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앵커의 두 번째 조건인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과 세 번째 조건인 시공간적으로 제약된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모두 충족한다. 다만 공공도서관이 가진 근본적 사명으로 인하여 집합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앵커의 조건을 충족하되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을 재고해야 할 이유이다. 그런데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유휴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 전략은 집합적 정체성을 더 쉽게 형성시킨다.

2.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공간을 상징하는 자원의 재생으로서 유휴공간 재활용 전략은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각광받는 건축 전략 중 하나이다. 유휴자원 재활용이란 방치되거나, 기능이 사라져 쓰이지 않는 공간의 원래 기능 혹은 효과를 보전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을 회복 또는 부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김현주, 이상호 2011). 김현주, 이상호(2011, 105)가 주장하는 재활용의 의의와 효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유휴공간 재활용의 의의와 효과

구분	내용	효과
생태환경적 효과	- 건축폐자재에 의한 환경파괴 예방 - 재개발로 인한 투자의 낭비와 자원의 낭비 방지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존에 부응
도시환경적 효과	- 무법지대 양산과 도시슬럼화의 원인 제거 - 물리적 노후화 극복과 도시공간의 안정성 확보	도시환경과 도시이미지의 개선
사회문화적 효과	-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밀착형의 시설로 재활용 - 침체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의 부여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공간의 창출

도시재생 패러다임 이전에도 유휴공간 재활용 전략은 존재해왔으나 기존의 유휴공간 재활용 전략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하드웨어 정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는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이 환경과 삶의 질 향상과도 연관을 갖게 되었다. 즉 지역의 역사 속에서 함께 존재해온 유휴공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정체성과 역사는 지역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내포된 의미와 상징성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김현주, 이상호 2011).

여기서 말하는, 유휴공간이 가진 ‘내포된 의미와 상징성, 지역의 정체성’은 공공도서관에 부족한 집합적 정체성이다.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공공도서관은 만남의 장소로서 장소성을 생산한다. 여러 사례들에서 공공도서관은 장소성을 생산할 때 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 복합공간에서 도시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역할,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Skot-Hansen, Rasmussen and Jochumsen 2013). 즉 공공도서관은 장소성 생산을 위해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단성훈과 최유종(2017)은 방치된 근대문화유산인 용산철도병원의 활용을 위하여 복합도서관 건축 계획을 제안하며 연구 목적을 “역사적, 문화적, 건축사적으로 가치있는 건축물인 용산 철도병원의 가치를 파악, 분석하고 리노베이션을 통해 도시의 공공성을 높여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시대의 요구에 맞춰 지속성을 지닌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단성훈, 최유종 2017, 44)”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기대되는 것은 본래 건축물(유휴자원)이 가지고 있던 가치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하는 것, 즉 유휴공간이 가진 장소정체성을 집합적 정체성으로 환원시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공공도서관의 미약한 집합적 정체성이 유휴자원의 장소정체성에 의해 보완된다.

3. 유휴자원 재활용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

가. 분석 개요

이상의 논고를 통해 사회적 앵커의 조건을 살펴보고,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에 있어 사회적 앵커로 기능하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게 되었다.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연구질문은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앵커인가?’이며, 그에 대한 조건으로 소질문 3가지가 도출되었다. 첫째,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생산하는가? 둘째, 공공도서관이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셋째, 공공도서관이 시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세 번째 질문은 본 논고가 실재하는 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으로 같음한다. 두 번째 질문은 일부 긍정되었으나 미약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미약한 집합적 정체성 형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의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이 제안되었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 전략을 검토한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 검토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이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분석의 대상이 될 도서관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연장선에서 설립된 공공도서관이다.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시설개념 변화가 앵커 개념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은 앞선 논고를 통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전략, 특히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건립한 국내 3개 도서관(의정부 가재울도서관,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 제주 김영수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연구질문의 검토를 위해서는 실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점검해야 하지만, 이 연구가 이론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앵커의 접목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론적 연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회적 앵커의 목적 하에서 건립된 공공도서관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기관의 설립 비전이 사회자본의 생산과 정체성 형성에 입각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당시의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해당 기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간되거나 공식기관을 통해 보도된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문헌자료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유휴자원 재활용 도서관 건립 사례 분석 대상 자료

도서관	분석대상	유형
의정부 가재울도서관	고재민, 박영애. 2018a. “유휴공간의 재발견: 의정부시 가재울 도서관.” 수록: 고재민, 박영애. 2018. 『도서관, 건축에 길을 묻다』.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82-91.	사례집
창원 지혜의바다도서관	고재민, 박영애. 2018b. “새로운 패러다임, 고정관념을 깨다: 김해시 지혜의 바다.” 수록: 고재민, 박영애. 2018. 『도서관, 건축에 길을 묻다』.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23-129.	사례집
	경상남도교육청. 2018. 3. 23. 살아 숨 쉬는 문화의 바다 ‘지혜의바다’ 4월 13일 개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contentsSid=1203&dataSid=968815 > [인용 2020. 5. 10].	기관 공식 보도자료

제주 김영수도서관	김희준. 2019. 마을커뮤니티 거점이 된 학교도서관. ASIA CULTURE FORUM 2019, pp. 133-141.	학술대회 발표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 재탄생한 김영수도서관, 도시재생의 미래를 밝히다. 『재생하다』, 11, pp. 18-20.	기관 소식지

나. 분석 내용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 당시의 배경을 중심으로 기관별 특성을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기관 개요로서 주소와 건립시기를 설명한다. 둘째, 사회적 앵커의 요소로써 시공간에 제약된 공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도서관이 건립되었던 유휴공간의 특성과 건립시기, 기존 유휴공간 이용자를 분석하였다. 셋째, 사회적 앵커의 특성인 사회자본의 생산 지원과 집합적 정체성 생산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건립 계기, 유휴공간 재활용 전략을 채택한 이유, 유휴공간에 도서관을 건립하기를 채택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유휴자원 재활용 도서관 건립 사례 비교

기관명		의정부 가재울도서관	창원 지혜의바다 도서관	제주 김영수도서관
기관 개요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동 평화로 63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13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 일동 1430-5
	건립시기	2017년	2018년	2018년
공간 특성	유휴공간 특성	역사 아래 공터	폐교된 학교 체육관 건물	원도심지역 노후화된 학교도서관
	기존공간 이용자	- 노숙자 - 무료급식 이용 노년층	재학생(폐교)	재학생
사회적 앵커 조건 특성	건립 계기	- 가능역 일대 슬럼화(노숙인, 상습취객) - 인근 15개 학교 밀집으로 치안문제 해결 필요	- 교육청 도시재생 정책 일환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시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 채택 사유	*도서관 건립이 유휴공간의 문제 해결을 위함	- 2017년 구암중학교·구암여중 통합으로 중학교 폐교	- 노후건축물 70% 이상 - 상업지역으로 임대료·땅값 고가 -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철거 어려움
	도서관 채택 사유	- 문화공간 필요 - 문화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 지역 변화를 통해 주변 상권 위축과 방지된 낙후환경 문제 해결	- 폐교 활용 과정에서 학교 건물 도서관 조성 계획이 공간확장 및 예산 어려움으로 폐지 -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복합 독서문화공간으로 제작됨	- 1996년 독립도서관 이전 이후 도서관 전무 - 기존 학교도서관의 의의를 계승 - 마을사업과 재생사업의 연결

출처: 고재민, 박영애 2018a; 2018b 경상남도교육청 2018. 3. 23; 김희준 201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

기관 개요를 통해서는 이들 기관의 건립시기가 국내에서 도시재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시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2013년 6월 제정되어 당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들 기관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기 건축되었다.

공간 특성을 통해서는 기존 공간이 공공도서관과 무관한 공간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철로 하부 교각의 공터로 별도의 기능을 가지지 않은 의미 그대로의 유휴공간(의정부 가재울도서관)이었다. 또는 폐교가 결정된 학교 체육관 건물(창원 지혜의바다도서관)로 다른 기능을 수행했고 현재는 역할이 없는 유휴공간도 있었다. 단 제주 김영수도서관의 경우 제주북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학교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학교도서관이었기에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앵커 조건 특성을 통해서는 2가지의 목적이 포착된다. 첫째, 유휴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을 채택한 경우이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서관 건립을 채택한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의정부 가재울도서관이다. 이들은 인근 15개 학교가 있음에도 노숙인 거처공간 등으로 슬럼화된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 공공도서관을 채택하였다(고재민, 박영애 2018a, 83). 두 번째 경우는 창원 지혜의바다도서관과 제주 김영수도서관이다. 창원 지혜의바다도서관은 2017년 폐교된 구암중학교 체육관에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물이다(경상남도 교육청 2018. 3. 23.). 학교 본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도서관으로 조성하려다 예산,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체육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였다(고재민, 박영애 2018b, 124). 제주 김영수도서관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육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추진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도립도서관이 1996년 건물 노후 관계로 이전한 이후 주민들이 도서관 설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요구와 맞물린 결과였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부지 특성으로 인해 신축이 어려워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을 채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출신이자 동문이었던 김영수 씨가 기증한 학교도서관을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제주 북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인 김영수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김희준 2019, 134-136).

도서관 건립을 위해 제안되는 핵심 키워드는 의정부 가재울도서관의 “청소년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하여, 직장인들에게는 지식과 교양을 위하여,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던) 어르신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의 여가생활을 위하여,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던) 노숙자들에게는 쉼터로서 ... 지역공동체 문화공간(고재민, 박영애 2018a, 83)”, 제주 김영수도서관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아이들과 손잡고 갈 수 있는 도서관’(김희준 2019, 133)”, 창원 지혜의바다도서관의 “경상남도 교육청은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만들기에 도전 ... 책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을 조성(고재민, 박영애 2018b, 124)” 등이다.

다. 분석 결과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을 채택한 도서관이 생겨난 것은 국내에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도입된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 공간들은 기존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기능이 도서관과 무관하거나, 도서관이었어도 지역사회에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도서관 건립을 채택한 이유는 유휴공간이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거나, 시민들이 도서관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거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관에서 도서관을 채택한 결과이다.

시민 혹은 공공기관은 유휴공간에 도서관의 건립을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사회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서로 간에 만날 수 있기를, 이 공간에서 취미 공유와 놀이터와 여가생활과 쉼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희구한다. 따라서 유휴자원을 통해 건립된 도서관은 사회적 앵커의 조건에 부합한다. 노숙자의 거주공간으로 우범지대였던 철로 아래 공간을 ‘안전한’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의정부 가재울도서관의 사례는 도서관에 대한 제도기반 신뢰를 설명한다. 동네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어른들이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제주 김영수도서관의 사례는 교량적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이미 주민들의 기대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의정부 가재울도서관은 오랜 시간 노숙인들의 쉼터이자 무료급식소로 치안이 위험했던 공간에 도서관을 들여놓았다. 이 과정에서 무료급식 단체와는 무료급식이 지속적도록 도서관을 설계하기로 협의하였다(고재민, 박영애 2018a, 86). 방치되었던 유휴공간을 점유하고 있던 다른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유휴공간의 장소정체성을 그대로 포용하고 있다.

창원 지혜의바다도서관은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였다. 기존의 도서관과 다른 복합독서문화공간의 특징을 살리면서, 체육관 특유의 천고가 높은 공간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시원하게 확 트인 하나의 공간을 책으로 가득 채워 책이 주는 웅장함과 장엄함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재민, 박영애 2018b, 124). 학교 체육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상징성을 심리적 요인으로 복원하였다.

제주 김영수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개선하게 된 데에는 원도심 부지의 특성과 예산 문제도 있었으나, 김영수 씨의 “모교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고,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말이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방향과도 일치했기 때문이다(김희준 2019, 135). 오래 전 마을에 살던 고향을 사랑하는 주민이 아이들을 위해 기증한 공간, 이 공간이 다시 마을에 환원된다는 상징성은 그 자체로 장소정체성을 부여한다. 김영수도서관의 설립 이후 운영을 위하여 제주시 전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을도서관 활동가 육성 교육이 진행되었고(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 20), 사서 1명과 활동가 1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1명이 함께 운영하는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모델을 새롭게 시도하였다(김희준 2019, 139). 학교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개방하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족들 간의 새로운 커뮤니티도 구축되고 있다(김희준 2019, 141). 이에 입각하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유희자원과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대차대조표

	유희자원	공공도서관
장소정체성	○	△
활동	X	○
치안	위험	안전

유희자원은 쓰이지 않거나 기능을 잃은 기관으로,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서 장소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활동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치안과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공공도서관은 장소정체성이 미약하지만 기능을 기반으로 한 만남과 활동이 존재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안전한 공간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유희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유희자원의 장소정체성을 통해 집합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생산한다. 반면 유희자원은 정체성은 보전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아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담보 받는다.

IV. 결론

도시재생 패러다임은 경제발전 중심의 근대적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불러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책인 생활SOC 계획은 좁은 거리 내에 집약적으로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전통주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한 축이다.

이 생활SOC 계획에서 도서관은 가장 자주, 주되게 언급되는 기관 중 하나로서 중요하다. SOC는 경제 중심의 인프라로서 대규모 자본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만, 생활SOC는 사람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취한다. SOC와 생활SOC의 구도는 자본 생산을 지원하는 공공성을 띤 지역 기반 장소를 일컫는 앵커 시설과 사회자본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앵커의 구도와 목적이 상통한다.

사회적 앵커는 앵커 시설이기에 시공간적으로 제약된 장소이며, 이 장소에서 다양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여 사회자본, 특히 교량적 사회자본의 생산을 지원한다. 즉 사회자본의 생산 지원,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 고정된 장소는 사회적 앵커의 요건이기도 하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 생산 지원 기관으로서 제도기반의 일반화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이 연결망을 형성하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반화된 호혜성이 다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재귀적 구조를 가졌다. 또한 특정한 지역에 위치해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앵커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본래 가진 개방, 공유, 정보평등의 가치로 인해 실천적 차원에서 집합적 정체성과 접목되기 어렵다. 한편 장소정체성과 연결했을 때에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감정적 애착 즉 장소정체성보다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능적 애착 즉 장소의존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앵커로서의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집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 유희자원 재활용 전략을 취해 건립된 공공도서관 3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미약한 집합적 정체성이 유희자원에 내포된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에 입각한 장소정체성을 통해 보완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유희자원을 재활용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면 비가시적이거나 관념적이었던 집합적 정체성이 보다 쉽게 실체화된다. 집합적 정체성은 유희자원의 장소정체성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유희자원은 기능이 없기에 활동하지 않고,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희자원의 장소정체성은 ‘과거’의 것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이며 ‘현재’ ‘나의’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공공도서관은 기능과 활동 및 관계망을 발생시켜 사회자본 생산을 강화하는 본질적인 사회적 앵커이다. 개념적으로는 이용자들의 만남과 상호작용을 추동하여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지만 정체성 형성은 이론적인 가능성일 뿐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유희자원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 시공간적 제약에 의해 활동이 생겨나고 관계망이 형성된다.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공공도서관의 활동에 의해 유희자원의 잠재적 장소정체성은 현재에 존속가능한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으로 환원되어 귀속된다.

즉 유희자원은 공공도서관이 더욱 강한 사회적 앵커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공공도서관은 유희자원의 장소정체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환원시켜 지속가능하게 돕는다. 유희자원과 공공도서관의 관계는 사람 중심의 삶을 복원하고 성장과 개발이 아닌 공유와 환원의 가치를 표방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적 앵커 형성 모델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앵커 개념을 도입한 시론적 연구였기 때문에 일부 사례에 대한 공개된 문헌을 바탕으로 가치를 입증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론을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앵커 시설로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의 유희자원 재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앵커를 한정적으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위인 도시재생 패러다임보다 더욱 확장된 범위에서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온 사회적 앵커로서의 역할과 의미 및 역할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과정은 공공도서관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이론적·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실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공공도서관 정책의 기초자료

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대표적인 한계점인 표본의 편의성을 보완하고, 향후 공공도서관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교육청. 2018. 3. 23. 살아 숨 쉬는 문화의 바다 '지혜의바다' 4월 13일 개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contentsSid=1203&dataSid=968815> [인용 2020. 5. 10].
- 고재민, 박영애. 2018a. 유휴공간의 재발견: 의정부시 가재울 도서관. 수록: 고재민, 박영애. 2018. 『도서관, 건축에 길을 묻다』.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82-91.
- 고재민, 박영애. 2018b. 새로운 패러다임, 고정관념을 깨다: 김해시[실은 창원시] 지혜의 바다. 수록: 고재민, 박영애. 2018. 『도서관, 건축에 길을 묻다』.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23-129.
- 구형수. 2018. 생활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 『국토정책 Brief』, 696: 1-8.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http://www.opm.go.kr/opm/info/soc04.do?mode=download&articleNo=122059&attachNo=92571>> [인용 2020. 5. 9].
- 김다솜. 2019. 『상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해방촌 마을도서관 계획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김상민. 2017.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활력 증진: 영국 커뮤니티 앵커의 시사점.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Brief』, 27.
- 김소연, 김용승. 2018. 도시재생과 작은도서관의 역할 - 일본공공도서관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8(1): 338.
- 김연수, 김세용. 2019. 생활 SOC 유형화를 위한 해외 선행연구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1): 534-537.
- 김용창. 2011.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특징과 성장편의 공유형 도시발전 전략의 구성. 『공간과 사회』, 35: 107-152.
- 김하진, 김기영. 2014. 다문화인의 적응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 -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 『제21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1: 173-176.
- 김현주, 이상호. 2011. 유휴공간 재활용 계획에 나타나는 도시재생개념의 영향 분석: 기존 연구에 등장하는 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7(6): 103-112.
- 김희준. 2019. 마을커뮤니티 거점이 된 학교도서관. 『ASIA CULTURE FORUM 2019』, 2019년 10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 133-141.
- 노영희, 노지윤. 2018. 도서관의 폐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4): 77-106.

- 노영희, 노지윤. 2019a. 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의 폐교 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 폐교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57-176.
- 노영희, 노지윤. 2019b. 폐교 시설의 효과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한 폐교 발생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요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91-116.
- 단성훈, 최유중. 2017. 방치된 근대문화유산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한 복합도서관 계획에 관한 연구 : 용산철도병원 활용을 중심으로. 『건설기술논문집』, 36(2): 43-50.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서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9. 법률 제16562호.
- 문은미. 2017.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 계획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6(5): 143-151.
- 문화체육관광부. 2020. 3. 5. 생활SOC. 정책위키 홈페이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 [인용 2020. 5. 9].
- 박성우. 2014.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97-215.
- 박성우, 장우권. 2009.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215-231.
- 박성우, 장우권. 2010.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성과 지적자본 모형 적용 가능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233-254.
- 신승수, 홍지학, 김광현. 2009. 영국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반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5(12): 259-268.
- 양영균. 2012.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작은도서관 용인시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35(2): 35-67.
- 양재영, 김동훈. 2016. 도시재생 기법을 도입한 공공도서관 계획에 관한 연구 -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구 제주대학병원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6(1): 151-154.
- 유해연. 2018. 호주 빅토리아주의 근린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특성 변화.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0(1): 103.
- 유해연, 송준엽, 양지원. 2018. 근린재생을 위한 공공 도서관의 계획특성 변화.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8(1): 288-291.
- 이성신, 성희자, 이세나. 2018.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작은도서관: 대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77-97.
- 이승민. 2016.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29-50.
- 이승민. 2018a.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정보공유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

- 지』, 52(4): 27-49.
- 이승민. 2018b.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 기제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139-160.
- 이승민, 박종도. 2019.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매개체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121-141.
- 이정호. 2012.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53-278.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 재탄생한 김영수도서관, 도시재생의 미래를 밝히다. 『재생하다』, 11: 18-20.
- 조희은, 남지현. 2019. 생활SOC의 범위 및 시설의 유형별·지역별 특성 연구 - 경기도 생활SOC 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5): 33-52.
- 최재연, 김찬호. 2015.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역할. 『국토계획』, 50(4): 165-184.
- 현영란. 2016. 공공도서관 사회관계망 유형, 사회자본, 성과의 관련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자료집』, 413-422.
- Anchor Institutions Task Force, 2009. *Anchor institutions as partners in building successful communities and local economies: A report*. <<https://community-wealth.org/sites/clone.community-wealth.org/files/downloads/chapter-harkavy-et-al.pdf>> [cited 2020. 5. 10].
- Bridger, Jeffrey C. and Theodore R. Alter. 2006. "Place,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Capital." *Community Development*, 37(1): 5-18.
- Clapton, Aaron W. and Bryan L. Finch. 2011. "Re-conceptualizing Social Anchors in Community Development: Utilizing Social Anchor Theory to Create Social Capital's Third Dimension." *Community Development*, 42(1): 70-83.
- Dragicevic, Nevena. 2015. *Anchor Institutions*. Toronto: Mowat Centre.
- Goodman, Ellen P. 2016. "'Smart Cities' Meet 'Anchor Institutions' : The Case for Broadband and the Public Library." *Fordham Urban Law Journal*, 41: 1665-1694.
- Harris, Karri A. and Michael Holley. 2016. "Universities as Anchor Institutions: Economic and Social Potential for Urban Development."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31: 393-439.
- Johnson, Catherine A. 2012. "How do public libraries create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library staff and patr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1): 52-62.
- McMillan, David W. and David M.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ersand, Shannon et al. 2019. "Public Libraries as Anchor Institutions in Smart Communities: Current Practices and Future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52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52: 3305-3314.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Skot-Hansen, Dorte, Casper Hvenegaard Rasmussen, and Henrik Jochumsen. 2013.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New Library World*, 114(1/2): 7-19.

Vårheim, Andreas. 2009. "Public Libraries: Places Creating Social Capital?" *Library Hi Tech*, 27(3): 372-381.

Vårheim, Andreas. 2011. "Gracious Space: Library Programming Strategies Towards Immigrants as Tools i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3(1): 12-18.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i, Jae-Yeon and Chan-Ho Kim. 2015. "The Characteristic and the Role of the Community Library as a Community Center."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0(4): 165-184.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9. *Thir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19-2023)*.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in Republic of Korea.

Dan, Sung-hoon, and Yu-jong Choi. 2017. "The Complex library Planning using of Modern Cultural Heritage : Focus on the Yongsan Railway Hospital."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36(2): 43-50.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18. 3. 23. 'the Sea of Wisdom' opens at 13 April.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Homepage.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contentsSid=1203&dataSid=968815> [cited 2020. 5. 10].

Hyun, Young-Ran.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Type and Social Capital, Performance of the Public Library." *Proceedings of 201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Summer Conference*, 413-422.

Jeju Urban Regeneration Center. 2019. "Kimyoungsu Library Rebirth Lights up the Future of Urban Regeneration." *Regenerate*, 11: 18-20.

Jo, Hee-Eun and Ji-Hyun Nam. 2019. "A Study on the Scope of Life SOC and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by Type and Region - Focusing on the Facilities Status of Life SOC in Gyeonggi-do and its Improvement Plan."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20(5): 33-52.

- Kim, Da-som. *A Study on the Community Library of Mixed Commerce and Culture : with Shinheung Market Aroject*. M. A. thesis., Hanyang University. South Korea.
- Kim, Ha-Jin. and Giyeong Kim. 2014. "A Study on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in the Accommodating Process of Multi-cultural Population in Korea : Social Capital Approach." *Proceedings of 21th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21: 173-176.
- Kim, Hee-Jun. 2019. "The School Library Became the Place for Community." *Proceedings of Asia Culture Forum 2019*, 133-141.
- Kim, Hyun-Ju. and Sang-Ho Yi. 2011. "The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Concept Revealed at the Renovation Plans of Under-Used Spaces - Focused on the Plans Appeared at the Former Research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7(6): 103-112.
- Kim, Sangmin. 2017. "Local Vitalization led by Local Community: Implications of Community Anchors in England." *KRILA Issue Brief*, 27.
- Kim, So-Yeon. and Yong-Seung Kim. 2018. "Urban Regeneration and the Role of Small Libraries in Korea - Based on the Cases of Public Libraries in Japan -" *Proceedings of 2018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pring Conference*, 38(1): 338.
- Kim, Yeonsoo. and Seiyong Lee. 2018. "An Analysis of Foreign Advance Research for Classification of Living SOC." *Proceedings of 2019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pring Conference*, 39(1): 534-537.
- Kim, Yong-Chang. 2011. "Characteristics of New Urban Development Paradigm and Construction of Development Strategies for Sharing Growth Benefits." *Space and Environment*, 35: 107-152.
- Ko, Jae-Min. and Yeong-Ae Park. 2018a. "Re-Discovery of Under-used Spaces: Gajaeul Library in Uijeongbu-si." in: Ko, Jae-Min. and Yeong-Ae Park. 2018. *Library, Ask Architecture Way to Go*.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82-91.
- Ko, Jae-Min. and Yeong-Ae Park. 2018b. "New Paradigm breaks the Stereotype of Library: the Sea of Wisdom in Changwon." in: Ko, Jae-Min. and Yeong-Ae Park. 2018. *Library, Ask Architecture Way to Go*.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82-91.
- Koo, Hyeong-Su. 2018. "Main Issues of Life SOC Policy and Strategy plan." *KRIHS Issue Paper Brief*, 696: 1-8.
- Lee, Jeong-Ho. 2012.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253-278.
- Lee, Seongsin, Heeja Sung, and Sena Lee. 2018. "Small Libraries as the Center of Local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Atti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77-97.

- Lee, Seungmin And Jong-Do Park, 2019.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Capital and Sharing Econom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3): 121-141.
- Lee, Seungmin, 2016. "A Study o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Use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29-50.
- Lee, Seungmin, 2018a. "Effect of Public Library-Mediated Information Sharing on the Construc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4): 27-49.
- Lee, Seungmin, 2018b.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as a Construction Mechanism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4): 139-160.
- Life SOC Promotion Team i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n Republic of Korea, 2019. *Life SOC 3-Years Pla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n Republic of Korea Homepage. <<http://www.opm.go.kr/opm/info/soc04.do?mode=download&articleNo=122059&attachNo=92571>> [cited 2020. 5. 9].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Republic of Korea, 2020. 3. 5. Life SOC. Policy Wiki Homepage.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 [cited 2020. 5. 9].
- Moon, Eun-Mi, 2017. "An Analysis of the Design of Public Libraries i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6(5): 143-151.
- Noh, Younghee, and Ji-Yoon Ro, 2018.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in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4): 77-106.
- Noh, Younghee, and Ji-Yoon Ro, 2019a. "A Study on Improved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in the Library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losed Area - Based on the Analysis of Area where Closed School Occurs Through the Socioeconomic Index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157-176.
- Noh, Younghee, and Ji-Yoon Ro, 2019b.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Needs Analysis of Community Residents to Reuse Closed Schools as Librar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2): 91-116.
- Park, Seong-Woo, 2014.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Created in Public Libraries -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Jeonnam-Provi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97-215.
- Park, Seong-Woo, and Woo-Kwon Chang, 2009.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215-231.

- Park, Seong-Woo. and Woo-Kwon Chang. 2010. "A Study on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Model Applicability of Intellectual Capital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233-254.
- Shin, Seung-Soo, Ji-Hak Hong and Kwang-Hyun Kim. 2009. "A Study on Realization of Publicness based on Communities through Looking into the British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5(12): 259-268.
-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2019. Act No.16562.
- Yang, Jae-Young. and Dong-Hoon Kim. 2016. "A Study on Public library Plans in the Old Downtown to Introduce an Urban Regeneration Scheme - Orienter Towards the Jeju Old University Hospital Remodeling in the Old Jeju Downtown." *Proceedings of 2016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Conference*, 36(1): 151-154.
- Yang, Young-Kyun. 2012. "The Formation of Local Community and Small Libraries in a City: The Case of Yongin City." *Korean Studies Quarterly*, 35(2): 35-67.
- Yoo, Hae-Yeon. 2018.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Library for the Neighborhood Regeneration." *Proceedings of 2018 The Korean House Association Conference*, 30(1): 103.
- Yoo, Hae-Yeon, Jun-Yeop Song, and Ji-Won Yang. 2018. "An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Libraries for the Neighborhood Regeneration." *Proceedings of 2018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Conference*, 38(1): 288-291.